

제 307호 · 2015년 5월 20일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

KMI

국제물류위클리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 CONTENTS |

물류 정책·사업동향

1. Drewry, 네덜란드 Maasvlakte II 신규터미널의 빠른 성장 전망
2. Neovia와 히타치유럽, 제후통해 유럽·중동·아프리카 건설장비 시장진출 강화
3. 앤티워프 항만, 컨테이너 처리 위한 추가 장치장 확보
4. APL 로지스틱스社, 자카르타에 신규 컨테이너화물집하소 개장

물류 시장동향

1. 프랑스 선사 CMA CGM, 쿠바 물류허브 건설 계약 체결
2. 오만, 새로운 물류센터 거점으로 부상 중

공지사항

1. 중소·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2. 2015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 공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물류정책 · 사업동향

□ Drewry, 네덜란드 Maasvlakte II 신규터미널의 빠른 성장 전망

-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Maasvlakte II의 첨단 신규컨테이너 터미널이 지난 4월 24일 공식개장하였음
 - 지난 10년간의 개발 끝에 완성된 Maasvlakte II는 로테르담항만의 면적을 20% 증가시켰고, 최종완성 시 연간 1,080만 TEU 규모의 하역능력 증가가 예상됨
 - 1단계 사업으로 Rotterdam World Gateway (RWG) 및 APM Terminals의 MVI 등 2개의 신규 터미널이 거의 동시에 운영을 시작하게 됨
 - RWG와 MVI 두 신규 터미널의 개장으로 인해 로테르담 항의 화물처리능력은 개장 초기에는 5백만 TEU, 그리고 완전가동에는 850만 TEU가 증가하게 됨
 - ECT가 소유한 Hutchison Ports역시 2008년 개장한 Euromax 터미널을 Maasvlakte II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금번 개장한 Maasvlakte II APMT 신규컨테이너 터미널은 세계 최첨단 수준의 자동화 및 탄소배출 제로 터미널임
 - APMT는 세계 최초로 원격조정 안벽크레인을 도입, 크레인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컨테이너 양적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
 - 또한 안벽과 야드 사이에는 자가하역이 가능한 배터리 구동 리프트 AGV 62대가 투입되어 컨테이너의 이송을 담당함
 - 리프트 AGV는 자체적으로 컨테이너를 고정된 랙 위에 올려놓거나 반대로 랙에서 AGV 위에 실을 수 있어 크레인을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할 수 있음
 - 터미널의 동력도 풍력발전으로 공급되어 CO₂ 제로 항만을 실현하였음
- 일반적으로 이러한 신규터미널의 성장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이머징 마켓의 경우, 기존 터미널의 하역능력이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신규 터미널의 물동량이 빠르게 증가하기도 함
 - 반면 로테르담과 같이 이미 완숙한 시장의 신규터미널은 초과수요 획득보다는 기존의 터미널과의 경쟁을 통해 처리물량을 확보해가는 것이 일반적이며, London Gateway나 Wilhelmshaven의 예에서 보듯이 터미널이 정상궤도에 오르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됨
 - 부산신항과 같이 신규 터미널의 물동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기존시설이 노후화되어 물량이 신규시설로 이전된 것이며, 베트남 Cai Mep항과 같이 인근 신규터미널 난립으로 인해 물동량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음

- 그러나 Drewry는 Maasvlakte II의 경우는 항만의 지분구조로 인해 비교적 빠른 성장을 기대하고 있음
 - Drewry는 Maasvlakte II 인근의 기존 터미널과 신규 터미널 간 경쟁은 무척 치열할 것이며, 고객들의 대이동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Drewry는 터미널의 소유구조가 고객의 이동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음
 - RWG는 APL, MOL, 현대상선 그리고 CMA CGM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APL, MOL, 현대상선은 G6 멤버이고, CMA CGM은 CSCL과 UASC과 함께 새로운 Ocean Three 그룹의 일원임
 - 또한 MVI는 세계 최대선사인 Maersk가 속해있는 A.P. Moller-Maersk 그룹이 100% 소유한 APMT가 운영하는 터미널임
 - 따라서 Maasvlakte II의 신규터미널인 RWG와 MVI는 기존 터미널과의 치열한 경쟁속에서도 주요 컨테이너 선사가 신규터미널로 이전,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자료 : www.porttechnology.org, 2015.4.24., 2015.5.11.

전형모 전문연구원 (☎ 051-797-4683, hmjeon@kmi.re.kr)

□ Neovia와 히타치유럽, 제휴통해 유럽·중동·아프리카 건설장비 시장진출 강화

- 자동차 및 부품 전문 물류업체 Neovia(전 Caterpillar 로지스틱스 또는 CAT 로지스틱스)가 히타치건설장비유럽(HCME)과 제휴하여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건설장비 운송 시장에 본격 진출을 시도하고 있음
 - 미국계 자동차 물류 전문업체인 Neovia는 최근 네덜란드 우스테르하우트(Oosterhout)에 소재한 HCME의 보관시설을 인수, 향후 5년 8개월간 운영하는 계약을 수주함
 - 이를 통해 Neovia는 HCME의 인력과 자산을 모두 인수, 비용효과적인 보관 및 운송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HCME는 세계 굴지의 건설장비 제조사인 히타치건설장비(HCM)의 자회사로서 유럽,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CIS 시장을 겨냥한 굴삭기 등 건설장비의 생산·공급을 책임지고 있음
- 금번 계약으로 히타치는 건설 붐이 일고 있는 '이머징 마켓'인 중동과 아프리카 건설 시장에서의 자사 제품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한편, Neovia는 2012년부터 시도해온 중동 아프리카 진출의 발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히타치는 유럽 시장 외에 아프리카 접근에 대한 역사적, 지리적 이점이 있는 프랑스 등 유럽국가 건설회사들의 아프리카 건설현장에 장비를 공급해 왔음
 - 2012년 11월 Neovia(당시는 CAT 로지스틱스)는 아프리카의 성장 잠재력을 내다보고 나이지리아에 합작 회사를 설립하면서 아프리카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음
 - 2014년 1월 Neovia는 기존의 미주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중동·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전세계 영업망을 미주·아시아태평양 지역, 유럽·아프리카·중동 지역으로 양분하고 각각의 지역본부에 최고 책임자를 임명한 바 있음
 - Neovia는 동시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소재 다임러 메르세데스 벤츠사에 차량 인수, 포장 및 재포장, picking, 운송준비, 역물류, 부품 재고관리 등 일관 서비스를 3년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Neovia는 전세계 25개국에 96개의 물류 관련 시설을 운영 중이며, 벨기에 싱가포르 영국 미국 등에 지사를 두고 190개국에 화물을 운송하고 있음
- 한편 아프리카 개발과 건설 붐 덕분에 굴삭기, 불도저, 크레인 등 건설장비의 수요가 크게 촉발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음
 - Construction Review Online에 따르면 아프리카 건설장비업 시장은 2015년 1월 현재 약 9억 달러에 이르며, 현재의 소량 집중 사용 방식에서 다량·특화 사용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추가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¹⁾

1) "The demand for used Construction Equipment & Heavy Machinery in the African Market," Construction Review Online, Jan 12, 2015 참조.

- 건설 장비의 주요 수요처는 교통 인프라 및 주택 등 건설 부문, 광물 개발, 관개 부문 등임
- 아울러 아프리카의 건설장비 구매자들은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값이 싸면서도 수명이 오래가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중고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자료 : www.gsciintell.com, 2015.5.12.

박성준 전문연구원 (☎ 051-797-4774, sjpark@kmi.re.kr)

□ 엔트워프 항만, 컨테이너 처리 위한 추가 장치장 확보

- 벨기에 엔트워프 항만의 1분기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5.9%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컨테이너 물동량은 9.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 추세에 따라 엔트워프 항만은 MSC와 머스크의 컨테이너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공간을 확보할 예정임
- 추가 공간은 스켈트(Scheldt) 지역 좌안(左岸, left bank)의 Deurganck Dock에 건설될 예정이며, 건설이 완료되면 현재 엔트워프 항만 우안(右岸, right bank)의 Delwaide Dock에서 이루어지는 MSC의 환적 화물을 이전·처리할 예정임
 - 추가로 건설되는 장치장에서는 연간 1,100만 TEU를 처리할 수 있음
- MSC의 환적화물 처리 공간 개발 외에도 엔트워프 항만공사는 엔트워프 항만 좌안 지역에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진행하고 있음
 - 기존에 확보된 좌안의 추가 컨테이너 처리 공간은 1,000 헥타르 이상이며, 단계별로 개발될 예정임
 - 엔트워프 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 대형 개발 프로젝트는 유럽 제2의 항만 위상 확립을 비롯하여, 국제 경쟁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함
-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는 Saeftinghe Dock 지역으로 안벽 길이 1,400m에 연간 510만 TEU 이상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함
 - 1단계 건설비는 약 6억6천 유로로 추정되며, 완공되었을 경우 해운 및 물류기업들의 장기적인 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2단계 개발 계획은 구체화 되지 않았으나 안벽 길이 4km 이상으로 1단계와 마찬가지로 Saeftinghe 구역에 개발될 예정임
- 신규 개발 프로젝트는 컨테이너 처리시설 외에도 물류 및 터미널 시설 개발을 포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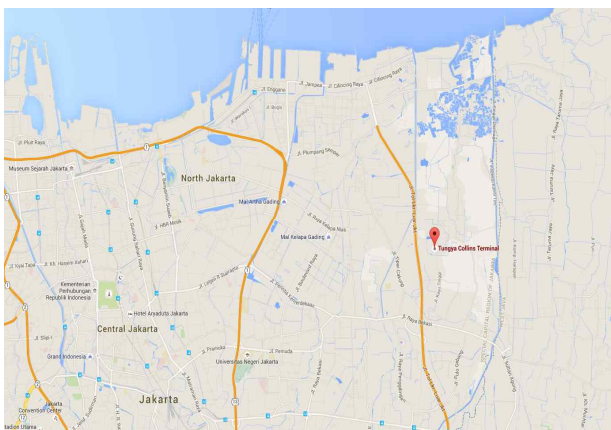
자료 : www.logistics-business-review.com, 2015.5.8.

손보라 연구원 (☎ 051-797-4781, bora62@kmi.re.kr)

□ APL 로지스틱스社, 자카르타에 신규 컨테이너화물집하소 개장

- APL 로지스틱스사는 자카르타 북쪽의 카쿱(Cakung)에 있는 통야 콜린스 터미널(Tungya Collins Terminal)에 신규 컨테이너화물집하소(Container freight station)를 개장함
 - 본 신규 컨테이너화물집하소는 수출물량에 대해 화물혼재(Freight consolidation)와 창고업(Warehousing)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도네시아 내에 APL사의 영향력을 증대시킴
 - 이에 더하여, 본 컨테이너화물집하소는 조달화물허브(Sourcing hub)로서 아시아에 있는 기존의 APL 로지스틱스사의 설비 등을 보완함

<통야 콜린스 터미널 위치>



<통야 콜린스 터미널 전경>



자료 : google, 2015.05.14. 검색, KMI 편집

- APL 로지스틱스사의 비트 사이먼(Beat Simon) 사장은 인도네시아는 공급지로서 국제적인 허브라고 밝힘
 - 또한, 인도네시아는 보다 효율적이며 질이 높은 창고업과 혼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힘
 - 따라서 본 컨테이너화물집하소는 사전예약소매(Pre-retail) 등과 같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함
- 신규 개장한 컨테이너화물집하소의 넓이는 11,000m²이며, 이는 야적장공간(Yard space)과 연계되어 크로스도킹(Cross-docking)이 가능한 창고를 포함함
- APL 로지스틱스사는 인도네시아 내의 5개 지역에 위치한 280여개의 공장에 대해 창고업과 혼재 및 해외 바이어를 위한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지난 3년간, 인도네시아 내의 APL 로지스틱스사의 처리물량(Cargo handling volume)은 매년 10%씩 성장하고 있음

자료 : www.gscintell.com, 2015.5.7.

고재성 연구원 (☎ 051-797-4776, jsko@kmi.re.kr)

물류시장동향

□ 프랑스 선사 CMA CGM, 쿠바 물류허브 건설 계약 체결

- 세계 3위 프랑스 해운선사 CMA CGM는 지난 11일 쿠바정부 및 Almacenes Universales 기업과 쿠바 마리엘 항에 물류 허브 건설 계약을 체결함
 - 이 허브를 통해 수출입 화물의 보관, 선적 컨테이너의 배송 및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마리엘 항만은 브라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며, 첫 번째 항만 구역은 지난해 초 개장하여 처음 6달 동안 57척의 선박을 통해 15,000개의 컨테이너가 하역되었음
 - 2015년 12월 수로확장이 마무리 되면 post-Panamax급 선박의 운항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약 12,000m² 의 창고와 5,000ℓ의 냉동저장고가 건립될 예정

자료 : www.wsj.com, 2015.5.11.

신수용 전문연구원 (☎ 051-797-4780, shinsy@kmi.re.kr)

□ 오만, 새로운 물류센터 거점으로 부상 중

- APME터미널사는 인프라 개발, 자유무역지역 확대, 규제 개혁 등을 통해 오만이 걸프지역의 게이트웨이 및 상업 중심지로 성장하도록 할 계획임
- 이러한 계획은 오만이 사업을 하기 위한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고 내륙으로 가기위한 좋은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 오만에서는 도로, 철도, 항공과 세계적 수준의 항만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복합운송이 가능함
- 이를 실현하기 위해 APME터미널사는 Salalah 자유지역(Salalah Free Zone)을 계획하고 있음
 - Salalah 자유지역은 항만에서 철도를 통해 GCC 국가 내 상업지역과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후단지에 식품가공공장, 창고시설, 크루즈 및 액체화물 저장 터미널 등을 건설할 예정임
- Salalah항의 개발로 연간 건화물 처리량이 2천만 톤, 액체화물 처리량은 6백만 톤이 될 것으로 기대됨
 - 2014년 기준 Salalah항의 처리물동량은 3백만 TEU, 일반화물은 1,030만 톤임

자료 : www.supplychindigital.com 2015.05.12

이하림 연구원 (☎ 051-797-4758, harimyi@kmi.re.kr)

< 중소·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는 **중소·중견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과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대상기업

-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 포함
 -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기업

□ 대상사업

- 해외 물류시설(물류단지·센터·창고·항만·복합물류 터미널 등)의 개발·투자·운영 사업
- 해외 화물운송 및 물류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법인·지사·사무소 설립 사업
- 상기 관련 M&A 및 기타 해외 물류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 지원내용

1.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 진출희망 지역 또는 추진하려는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현지 시장정보 및 진출·투자 여건 등 기초정보에 대해 단기 컨설팅 지원
 - 현지 경제·무역·인프라·물동량 현황, 투자 관련 법·제도 등에 관해 기업이 문의 시, KMI가 보유하거나 입수 가능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해당 문의사항 관련 정보 제공
- 컨설팅 결과물은 문서 형태로 제공

2.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해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현지 공동조사(KMI 연구진과 물류기업 임직원이 동반)를 수반한 중기 컨설팅 지원
 - 필요시 해외투자 유관기관 및 현지 유관기업 관계자와의 상담 주선
 - ※ 현지 공동조사에 수반되는 출장비 등은 KMI와 해당기업이 각자 부담
- 조사 종료 후 공동조사 보고서 제공

□ 지원사업별 신청방법

1.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별첨 1)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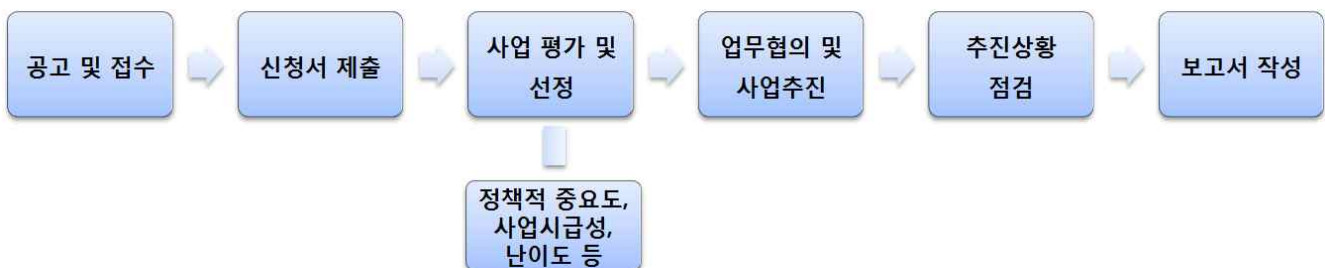
2.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지원 신청서'(별첨 2)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 ※ 담당자 : 김은우 전문연구원(hisgrace@kmi.re.kr), 손보라 연구원(bora62@kmi.re.kr)

□ 신청서 평가 및 기타

- 선정기준
 -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시급성 · 난이도, 정책적 중요도,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 · 지원
- 선정결과 발표 : 신청서 접수 후 2~3주 이내 개별 통지
- 유의사항 :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등은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김은우 051-797-4772 / 손보라 051-797-4781)로 문의
- ※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사업 추진절차



< 2015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 공모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및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2015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증계획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7일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 신청기간

2015년 4월 17일(금) 09:00 ~ 2015년 7월 31일(금) 18:00

2. 신청자격

「항만법」 제2조제4호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구역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

* 물류창고업 등록 사업장별로 인증 신청

3.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기타 사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 내 인증계획 공고문 및 별첨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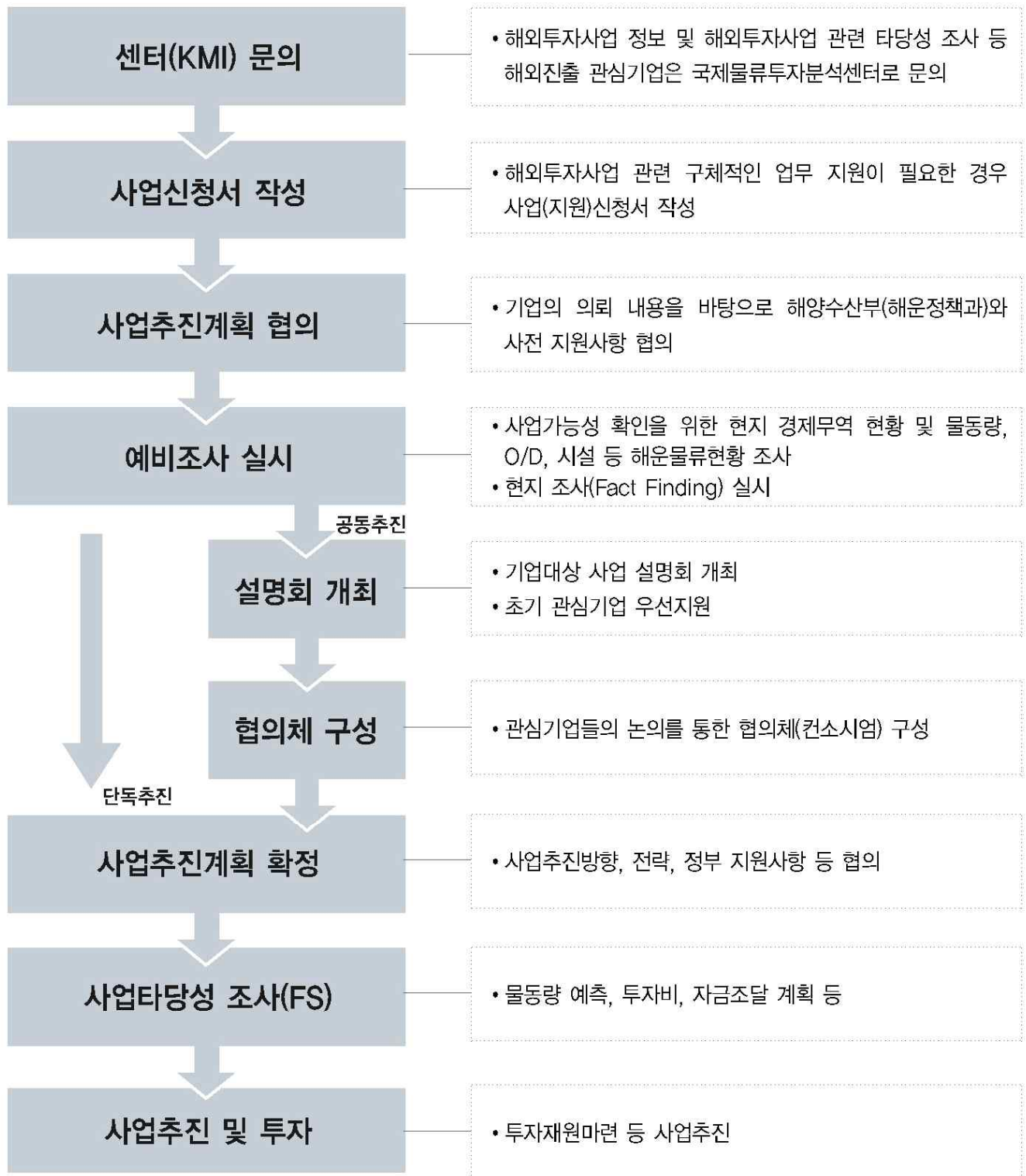
4. 문의처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은미 연구원(051-797-4778, usea1004@kmi.re.kr)

김주혜 연구원(051-797-4779, joohye915@kmi.re.kr)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